

재일 한인 생활사의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

이 헌 홍**

차 례

I. 글머리	III.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
II. 재일 한인 수필문학 자료의 개관	IV. 마무리

I. 글머리

이 글은 재일 한인이 자신들의 삶을 어떤 모습의 수필로 그려내고 있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재일 조선인, 재일 한국인, 재일 한국·조선인, 재일 코리안, 재일 동포, 재일 교포, 재일 한인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韓民族’이라는 의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개인과 집단을 두루 지칭할 수 있는 우리말 어휘라는 판단에서 ‘재일 한인’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¹⁾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HS0013).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재일 조선인’이라는 호칭이 많이 쓰이기는 하나, 이는 특정 정치 집단과의 연관성, 일본인들에 의해 형성된 비하적 의미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재일 동포’, ‘재일 교포’는 한자 문화권의 다른 민족이 사용할 경우에 그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재일 코리안’은 의미가 적절하나 조어법상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따라서

생활사란 개인의 일상적 경험인 파편적 단위 체험이 시간적·인과적 계기 관계의 축으로 이입·재구성된 일종의 생애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험담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경험담이 공간성 혹은 개별적 경험 단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생활사는 시간성을 중시하는 지속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아온 생활 집단의 삶과 의식을 두루 조망해 보는 데에는 이러한 경험담과 생활사가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띠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특이한 체험에 대한 현재적 시점의 의미 부여는 물론 그 개인과 함께 한 생활 집단 내지는 문화 집단의 고뇌와 환희, 의식과 세계관 등을 두루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필문학이 본래 한 개인의 사적인 체험과 그를 통한 느낌 혹은 깨달음을 진솔하고 자유롭게 그리는 갈래임을 생각해 본다면, 재일 한인의 수필 속에 나타난 생활사를 살펴보는 일은 그들의 삶과 의식 세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들의 생활사가 세대별로 구축된다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는 물론, 광복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민족의식 내지는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재일 한인 수필문학 자료는 단행본²⁾과 잡지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재일 한인 사회에서 발행된 잡지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잡지는 그 특성상 일정 기간에 걸친 재일 한인 사회의 집단적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이들 잡지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간행한 것으로, 집필진에서부터 편집·간행 및 보급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인재들의 땀과 고뇌가 서려있다.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대상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 중에는 재일 1

논문의 제목이나 선언적 성격을 지닌 冒頭語로는 재일 한인이라는 말을 사용함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재일한인의 생활사를 담고 있는 단행본에 대해서는 이현홍, 「재일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4집(한국문학회, 2003.8.), 89~142쪽을 참조.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한민족 서사문학 연구』(박이정, 2005.8.)에 재록되어 있다. 이하 이 논문의 인용 등은 단행본을 활용하기로 한다.

세대를 주축으로 발간된 한국어 잡지가 있는가 하면, 재일 2.3세대가 주축이 된 일본어 잡지도 있다. 그리고 집필진 또한 재일동포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국내인이거나 일본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한양』, 『삼천리』, 『청구』 등에 수록된 재일 한인의 수필은 줄잡아도 500편을 웃돈다. 이들 작품 중 많은 수가 재일 한인들의 역사적 체험, 예컨대 조국에서 쫓겨나기까지의 험벗고 굶주린 삶, 징용이나 징병으로 인한 강제 동원, 미지의 낯선 땅에 이르는 과정과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일상, 이민족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과 멸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일 한인의 수필에 담긴 생활사의 유형과 의미를 우리는 1)이주민으로서의 삶과 망향 의식, 2)정체성 모색과 실존적 재일 인식, 3)조국 현실의 인식과 참여 의지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중에서 특히 1)과 2)에 중점을 두고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재일한인 수필 문학 자료의 개관

여기서는 『한양』, 『삼천리』, 『청구』에 나타난 재일 한인 수필 문학 자료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양』은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東京에서 간행한 월간 교양 잡지로 1962년 3월에 창간호가 나온 후, 1984년 3·4월호(통권177호)로 중단되었다. 재일한인 사회에서 우리말로 간행된 잡지라는 점에서 『한양』은 현지의 필자와 독자뿐만 아니라, 한민족 일반의 의식세계와 지향가치가 상호 소통·공유하는 마당으로 존재함은 물론, 우리 민족문학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³⁾ 이에 본고에서는 『한양』에 실린 수필문학을 중심 자료로 삼아 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삼천리』, 『청구』에 실린 수필문학을 보조 자료로 함께 살펴려 한다. 『한양』이 1960년대 초반~80년대 초반까지 간행된 데 비해, 『삼천리』는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후반까지, 그리고 『청구』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중반까지

3) 이현홍, 「『한양』 소재 재일한인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동북아시아 한민족 서사문학 연구』(박이정, 2005), 409쪽.

간행되었기에 이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재일 한인 수필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시대적으로 총괄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이다.⁴⁾

먼저, 『한양』 소재 수필을 그 내용이나 주제 및 창작 연대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한양』 소재 수필에 나타난 재일 한인 생활사 목록

내용 및 주제		시대별 작품 수		주요 작품	
타국에서의 고난		60년대	16	박영일, <팔월의 회상>(62.6.), 이덕성, <망향>(63.5.), 강휘진, <역사의 기아들>(64.10.)	
		70~80년대	0		
민족 차별과 저항 의지	주택	60년대	4	이수성, <이사하는 이야기>(64.7.), 이덕성, <그녀의 한숨>(63.1.), 이덕성, <婚齡>(62.11.), 김동하, <유능한 친구들>(62.11.), 이덕성, <깃뺨힌 여성>(63.8.), 이수현, <아이들 이야기>(64.5.), 조동원, <셋방살이>(66.1.) 김형렬, <差別斷想>(68.3.), 한기수, <新婚雜感>(69.2.)	
		70~80년대	0		
	취업	60년대	3		
		70~80년대	0		
	기타 (교육, 멸시)	60년대	5		
		70~80년대	0		
	저항의지	60년대	3		
		70~80년대	0		
고향에 대한 그리움		60년대	34	신상인, <은행나무>(62.10.), 박원석, <고향에 부치노라>(62.11.), 신상인 <향수의 날개>(65.6.), 박영일, <고향>(66.3.), 김형렬, <正初의추억>(68.1.), 고봉석, <차레>(71.1.)	
		70~80년대	2		
정체성의 모색	모국어	60년대	14	이덕성, <모국어>(63.3.), 황명동, <교포와 우리말>(66.1.), 송지행, <모국어>(66.5.), 김명진, <모국어를 두고>(66.11.), 박화자, <모국어> (68.6.)	
		70~80년대	5		
	전통문화	60년대	23		
		70~80년대	3		
	이름, 결혼	60년대	7		전세민, <성명고>(63.3.), 배동호, <교포와 일본 이름>(66.3.), 윤효식, <계약결혼>(63.9.), 안복기자, <일본인과의 결혼의 한계>(68.5.), 배동호, <교포와 신전결혼>(66.10.)
		70~80년대	0		

4) 물론 이러한 잡지들에 수록된 수필들이 시대의 흐름과 각 잡지의 성격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도 주목할 만한 연구과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귀화	60년대	2	김윤, <귀화인의 주변>(66.6.), 김동훈, <‘귀화’ 단상>(67.8.)
		70~80년대	0	
	주체성의 자각	60년대	16	신상인, <혼을 판 사람>(62.6.), 전세민, <카메레온의 눈>(63.2.), 전세민, <열등감>(63.6.), 한기수, <열등의식>(64.9.), 정철, <주체의식과 소비니즘>(64.12.), 박근삼, <버릇>(65.10.), 김형렬, <차별단상>(68.3.)
		70~80년대	4	
조국 현실에 대한 관심	경제	60년대	22	김도포, <삼면기사>(62.5.), 전세민, <춘절>(63.4.)박원석, <한 신문에 두 가지 세상>(63.10.), 이준석, <떨레꽃>(78.5·6.)
		70~80년대	13	
	사회, 세대 등	60년대	24	문철호, <신록수상>(62.7.), 이상석, <유서>(65.3.), 전세민, <기아>(69.2.), 김을한, <서울에 와서>(70.2·3), 양승만, <탐라인상>(71.10·11.)
		70~80년대	16	
	정치	60년대	9	전세민, <물>(62.7.), 김인재, <보릿고개>(63.3.), 장용직, <선거의 계절>(67.5.), 정명기, <법의 그늘>(75.1.), 이준석, <밤은 새기 전이 가장 어둡다>(75.2·3)
		70~80년대	78	
	통일	60년대	7	한기수, <육친의 정>(64.11.), 홍명희, <팔월의 감회>(69.10·11.), 이문환, <절실한 염원>(71.8·9.), 이원식, <다리>(72.8·9.)
		70~80년대	33	

『한양』에 수록된 재일한인의 수필 가운데 그들의 생활사 관련 내용이 뚜렷하게 등장하는 수필만 해도 340여 편이나 되니 결코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60년대까지는 이국 생활의 고난과 차별 체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귀국의 소망, 정체성의 확인과 주체성의 자각 요청 등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된 수필에서는 재일 2세 이후 세대들의 정체성 관련 고민을 담은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재일한인의 주체의식·민족적 정체성의 자각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양』 소재 수필의 시대적 분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⁵⁾

70년대 이후에는 여타 주제에 대한 비중이 확연히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조국 현실에 대한 관심 표명이 월등히 많아진다. 60년대에 볼 수 있는 조국에

5)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한 번 살피기로 한다.

대한 관심은 주로 동포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더 이상 헐벗고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 위정자들의 현명한 정치를 기대하면서 하루 빨리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정도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70·80년대에는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동자의 권리 찾기 등으로 그 관심이 훨씬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과 통일 지향이 별개가 아님을 드러내기도 한다. 즉, 이러한 문제들 모두가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모순에서 기인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뚜렷한 정치적 시각 위에서 당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자 하는 수필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三千里』는 1975년 봄 발행인 이철, 편집위원 강재언, 김달수, 김석범, 박경식, 윤학준, 이진희, 이철 등에 의해 창간된 일본어판 계간 종합지이다. 이 잡지의 창간사에서는 잡지명에 담긴 뜻과 편집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을 가리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도 부른다. ‘아름다운 산하를 지닌 조선’이라는 의미이다. 잡지 『계간 삼천리』에는 조선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본방향을 드러내보인 1972년의 ‘7·4공동성명’에 실려 있는 ‘통일된 조선’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소망을 담고 있다.

지척시간에 있으면서도, 조선과 일본은 아직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관계에 있다. 우리들은 조선과 일본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을 풀고, 서로간에 이해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를 지어나가고 싶다.⁶⁾

요컨대, 『三千里』라는 잡지는 통일 조국의 실현을 위한 디딤돌 내지는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맡고 싶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일 동포 문학자와 연구자’들은 물론 ‘많은 일본의 문학자와 연구자’들과도 함께 연대해 한·일 양국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전망한다.

『三千里』에는 ‘架橋’라는 타이틀 하에 재일 동포와 일본인의 수필을 실고 있으며, 통권 제16호(1978. 가을호)부터는 <私にとっての朝鮮·日本>이라는 꼭지를 별도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는 재일 한인들의 일본에서의 삶과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에 관련된 수필을 다수 실고 있다. 이를 <표2>로 보인다.

6) <창간사>, 『三千里』 1호 (1975.봄)

<표.2> 『三千里』소재 수필에 나타난 재일 한인 생활사 목록

내용 및 주제	주요 작품
타국생활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김태생, <어느 여인의 생애>(3호), 김석범, <왜 재판인가1~4>(6~9호), 김덕순, <재일50년>(16호), 서용달, <집단소개와 은사>(16호), 고계영, <고향>(17호), 정귀문, <고국에 돌아간 사람>(18호), 이정순, <25년째의 고향>(18호) 공순홍, <재일오십년의 잠감>(19호), 장은규, <나의 청춘시대>(20호), 이정임, <귀국하는 날까지>(23호), 김석범, <차별, 잠감>(25호), 박조자, <야간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26호), 김광자, <살아간다는 일과 마주하여>(36호)
정체성의 모색	박종금, <나에게 조국이 지니는 의미>(3호) 김경식, <말뚝이와의 만남>(8호), 위량복, <초등학생에게 배운 나>(17호), 中村昌枝, <아버지 나라>(19호), 김창관, <우리들의 아리랑>(19호), 이양지, <산조의 선율 속에서>(19호), 김영중, <처음 만난 조국>(19호), 강박, <자기를 청산한다는 것>(20호), 손인일, <아버지의 얼굴>(24호), 이경자, <아버지의 재일·나의 재일>(24호), 손제현, <아버지의 유골>(24호), 염묘달, <골무여 춤춰라>(24호), 최영애, <한국의 교회에서>(24호), 이지택, <머나먼 판소리>(26호), 정운희, <두 청년과의 만남>(26호), 정조묘, <은사>(26호), 이종웅, <나의 고집>(28호), 김준일, <45세의 추억>(28호), 조영원, <김치>(33호), 김중명, <조선어 교실을 시작하며>(35호), 김수길, <‘재일’이라는 것>(35호), 원성진, <민족적 적극론과 재일세대>(37호)

표를 살펴보면 『삼천리』는 재일 1세대의 타국살이와 망향의식, 재일 2, 3세대의 정체성 모색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조국현실에 대한 관심을 수필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있는 작품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삼천리』가 조국현실에 대한 관심을 담은 글을 도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글은 대개 ‘르브’ 혹은 ‘기사’ 등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수필이라 보기는 어려운 작품들이 많다. 이는 조국의 정치 현실을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함으로써 수필이라는 형태로는 그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여김은 물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靑丘』는 1989년 8월에 창간, 1996년 2월 통권 25호로 중단된 일본어판 계간 종합지이다. 이 역시 ‘예전부터 한국을 가리키는 雅號중의 하나’인 靑丘를 잡지명으로 삼아, ‘통일을 바라는 우리들의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었다.⁷⁾ 『靑丘』에

는 ‘隨筆’이라는 타이틀 하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글들을 싣고 있는 한편, 제2호(1989. 겨울)부터는 <いま在日は>라는 꼭지를 별도로 만들어, 재일2, 3세의 민족의식과 在日觀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1세대의 고난과 정착체험을 그린 정승박의 <변덕스런 여행자>(11호, 1992년 봄), 재일 한인의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문제 삼고 있는 이정자의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들>(14호, 1992년 겨울), 김재문의 <일본어에 붙잡혀버린 在日>(22호, 1995 여름), 문경주의 <미디어 속의 나라>(25호, 1996년 봄), 그리고 일본내의 차별과 저항을 그린 원수일의 <드라마 「이 손가락이야 어찌됐건」>(22호, 1995년 여름)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Ⅲ. 수필문학적 형상과 의미

1. 이주체험과 망향의식

1) 타국살이의 고난과 떠돌이 정서

도일과 일본 생활은 재일 한인 생활사의 가장 원천적인 체험이다. 재일 한인의 도일 동기와 과정은 실로 다양하나 그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몰락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거나, 징용·징병 등으로 인해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다.⁸⁾ 따라서 재일 한인의 수필 속에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일본으로 찾아들거나, 강제로 끌려와야만 했던 사연, 낯선 땅에서 생존을 위해 겪었던 갖은 고생과 천대가 생생하게 나타난다.

<팔월의 회상>(박영일, 『한양』62.8.)은 글쓴이가 평생동안 자기 부친의 일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그의 억울한 죽음과 그 당시의 처절했던 상황을 되돌아 보

7) <창간사>, 『청구』1 (1989.가을)

8) 강재언 외,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소화, 2000) 23~85쪽 ; 유영렬, 『재일조선인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한국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삼인, 2003) 참고.

는 내용이다. 그의 부친은 1940년 ‘일본 북해도 N탄광 갱내 인부’로 끌려와서, 갱내 작업을 하다가 ‘광복 두 달 전’ 산이 무너져 사흘 만에 시체로 발견된다.

다른 것은 잊었으나 신발이 다 떨어진 사이로 험상궂은 발가락이 내다보이던 것과 옷을 갈아입혀서 광산 밑의 돌각담에 매장하려고 할 때, 갈아입힐 옷도 없었거니와 입은 옷을 벗기니 아랫도리의 속옷도 없던 것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나의 머리에 못박혀졌다. 부친의 무덤을 둘러 선 동포 노동자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통곡도 하지 않았다. 연 삼일을 곡성으로 조상하는 습관이 있는 동포들이 한 마디의 곡 소리로 못내게 할 만큼 세상은 험하고 어두웠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사람들의 얼굴빛만 살피고 있었다.⁹⁾

낯선 땅으로 강제로 끌려와衣食住마저 해결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했고, 죽은 후에도 그 유가족들이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암울했던 것이다. 광복이 되고 나서야 그의 모친은 고향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남편의 초상을 다시 치르고는, 밝은 날을 못보고 죽은 남편을 애석해 하며 마른 통곡을 터뜨린다. 이는 일제의 만행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일 오십년>(김덕순, 『삼천리』16호)의 글쓴이는 일본과의 첫 만남을 고향 집 앞 파출소에서 시작한다. 조선인들이 매일같이 그곳에 끌려가 두들겨 맞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어린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밥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였다. 그토록 무서운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본인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접어두고, 먹고 살기 위하여 필사적인 도일을 감행한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그녀가 밥집에서 일을 하면서 손짓 몸짓으로 뜻을 전해야 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듯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집 한 채 지을 돈만 모으면 돌아갈 것’이라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돈을 모은다. 그러나 뜻밖에도 원폭 때문에 더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 바로 큰 딸과 작은 아들이 원폭 피해로 죽고 만 것이다.

원폭으로 장녀와 차남을 잃었습니다. 당시 장녀는 시집을 가서 현재 원폭

9) 박영일, <팔월의 회상>(『한양』62.8), 149쪽.

위령비가 있는 부근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부근은 원폭이 투하된 가장 중심지로, 며칠 동안이나 불꽃에 휩싸여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차남은 여름방학이라 근로봉사 때문에 시내로 징집을 당했다가 원폭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필사적으로 계속 찾았습시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불명인 채로 병원에 수용되어, 그곳에서 본인이 의식을 회복해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중순경 우리들의 간호를 받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반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¹⁰⁾

큰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둘째 아들마저 자신의 눈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믿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상처로 남은 것이다.

재일 한인의 고난은 재일 1세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지독한 가난은 자식대에까지도 대물림 되는가 하면, 그 가난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우중일기>(이준석, 『한양』62.6.), <손자들을 찾아서>(이덕성, 『한양』63.6.) 등이 바로 그런 예들인데, 이러한 가난은 일본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제도적·일상적 차별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노두단상>(문철호, 『한양』62.9.)의 글쓴이는 어느날 거리에서 구걸하는 조선인을 보게 된다. 그 사람을 두고 일본 여성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저건 조선치야요, 죄저모양으로 파렴치하답니다, 말로 하면 탄로가 날 테니까 저렇게 능청을 부리는 거지 뭐.”(166쪽)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 역시 일본에서의 30여년을 그와 같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아이들 이야기>(이수현, 『한양』64.5.)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조선진’이라고 놀림받은 경험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재일 한인들에게는 셋방을 구하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사와 문패>(김철수, 『한양』62.창간호), <집>(함원태, 『한양』62.11.), <이사하는 이야기>(이수성, 『한양』64.7.) 등은 한국인인 탓에 셋집 구하는 데 애로가 적지 않은 현실을 서술하고 있다. 집 주인이 눈치를 채기만 하면 쫓겨나서 이사다니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고통을 그리는가 하면, 우여곡절 끝에 급기야는 한국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집을 구하게 되는 사정을 그리기도 한다. 셋집을 구하기 위

10) 김덕순, <재일오십년> (『삼천리』16호), 201쪽.

해 부득불 일본식 이름을 썼으나 언젠가는 본명을 밝힌다거나(<이사와 문패>), 집을 구할 때부터 한국인임을 밝히고 집을 구하게 된다(<이사하는 이야기>)는 이야기 등은 말로는 쉬운 듯하나 그 과정의 고통은 필설로 다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일 한인들의 대물림되는 가난과 가정 파탄의 이면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녀의 한숨>(이덕성, 『한양』63.1.), <婚齡>(이덕성, 『한양』62.11.), <유능한 친구들>(김동하, 『한양』62.11.), <짓밟힌 여성>(이덕성, 『한양』63.8.) 등은 재일 한인이 당하는 취업 차별과 그로 인한 고통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결국은 부랑자가 되거나(<그녀의 한숨>), 취직을 못해 방랑생활을 하는 탓에 결혼 적령기를 넘기게 되거나(<혼령>), 취직에 실패하고 찾집에 모여 잡다한 토론으로 소일을 일삼으면서 삶의 우울과 허무를 달래는 롬펜이 되거나(<유능한 친구들>),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어 결국은 윤락녀의 길로 접어든 여성과 그런 누나에 대한 충격 때문에 가출을 일삼다가 결국은 소년원을 드나들게 된 동생(<짓밟힌 여성>) 등은 재일 한인이 겪는 취업차별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수필들이다.

그들 중에는 이러한 차별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인하는 <민족차별과 싸우면서>(『삼천리』24호)라는 글에서 일본에 존재하는 차별을 제도적 차별과 일상적 차별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글쓴이는 우선 이러한 차별의 원인이 일본인에게 있음을 말한 후, 재일 한인의 책임도 함께 묻는다. 그는 박종석의 취직 차별에 대한 투쟁이나 김경득의 귀화 거부 사건¹¹⁾ 등을 예

11) 박종석은 1970년 히타치에 취업이 되었으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다. 이러한 취업 차별은 재일 한인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었으나, 박종석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투쟁을 벌여 결국 1974년 채용 취소 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 김경득은 1972년 27세의 나이로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생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며 그에게 귀화를 종용한다. 이에 김경득은 귀화를 거부하고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벌이게 되며, 이듬해 마침내 사법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삼천리』 12호에서 열린 <재일조선인을 말한다>라는 좌담회에서는 김경득을 가리켜 ‘한 개인으로 일본 사회와 대면한 것이며, 민족을 등졌던

로 들면서, 재일 한인의 민족주체성 인식과 실천은 일본인에게도 자극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경제적 고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천대와 멸시 속에서 터잡고 편하게 살 곳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재일 한인들은 광복 후에 앞다투어 귀국을 서두르나 그 또한 여의치가 않았다.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에다 설상가상으로 귀국 지참금품의 제한¹²⁾ 등의 이유로 인해 적지 않은 이들이 귀국을 보류한 채 일본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귀국을 결행했다가 끝내 조국에서의 터전 마련에 실패하고 다시 도일하는 경우도 있다.

<고향>(고계영, 『삼천리』17호)의 글쓴이는 전쟁이 끝나고, 자신을 돌봐주던 친척이 귀국하자, 자신도 부모와 가족이 있는 제주도로 귀향한다. 귀국 후 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치료한 다음에 일을 계속하고자 했으나 고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뜻대로 되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1948년 빨치산 봉기까지 일어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그는 도망치듯 제주도를 떠나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일본에서 살면서도 그는 항상, 부모의 묘소와 어릴 적에 헤어진 자녀들이 있는 제주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 이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 켠에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불안과 감정의 응어리가 도사리고 있어 쉽사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결국 그는 ‘고향에 돌아가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테고, 부모님께 불효를 거듭하기만 한 자신이 이제 와서 어찌 돌아갈 수 있겠냐’며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 주저앉고 만다.

일본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자연히 떠돌이 정서가 싹틀 수밖에 없었다. <이연실씨>(김태생, 『삼천리』18호)의 글쓴이는 이연실이라는 여인의 일생을 통해 재일 한인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외로움, 갈곳 없는 떠돌이 신세를 절절히도 그리고 있다. 이연실은 제주도 출생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친을 잃고, 모친마저 자신을 버린 채 집을 나가버리게 된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청년이 민족성을 회복하고 조선인 변호사의 길을 밝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였다.

12) 강제연 외,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소화, 2000), 115~123쪽.

그녀는 8세 때 조모와 함께 오사카로 건너와 그 때부터 스스로의 끼니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인다.

17세에 결혼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군수공장에 끌려가면서 다시 한 번 생이별을 겪게 된다. 한숨으로 지내던 어느 날 밤, ‘죽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다 죽겠다’는 각오로 도망쳐 빠져나온 남편과 함께 아마가사키로 숨어들어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광복을 맞게 된다. 그러나, 광복 후에도 이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탈주자 신분이 들통날지 모른다는 까닭없는 불안감 때문에 심적, 경제적 고통은 여전히 계속된다. 이런 형편에다 암시장에 쌀을 구하러 간 남편이 실종되었는데도 신고조차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데, 이로써 그녀는 남편과 영영 헤어지게 된다. 후에 그녀는 가난한 일본인과 혼인을 하게 되나 생활에 다소 여유가 생기자 남편은 그녀를 멀리하게 된다. 일본인 남편에게마저도 버림받은 외로움, 전 남편이 조선인임을 밝히지 못하는 자신과 딸의 차별적 상황, 뒤늦게 알게 된 모친의 사망 소식 등 이연실씨는 끊임없는 차별의 환경에서 원치 않는 이별을 강요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글쓴이에게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다 말한 후, 그녀는 ‘지금도 남편의 꿈을 꾸다’며 ‘만약 죽었다면 최소한 유골만이라도 거두어주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면서, 어찌 보면 자신도 그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이 ‘돌아가려고 해도 안심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인간인 듯하다’며 쓸쓸한 웃음을 짓는다. 그녀의 쓸쓸한 웃음 속에서 글쓴이는 도리어 괴로움을 견뎌낸 자만이 알고 있는 인간적 온화함을 느끼게 된다.

<역사의 棄兒들>(강휘진, 『한양』64.10.) 또한 일본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의 비정과 무책임은 물론, 그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내는 우리 동포의 강인한 모습을 아울러 그려내고 있다. 지은이는 백의의 상이군인들이 변화한 역전 가두나 전차간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대도시 동경, 백주의 거리를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며 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곤 한다. 그러나 뒷날, 일본 상이군인들의 생활 실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그들의 태반이 바로 자신과 같은 민족임을 알고 난 후에는 그들이 겪은 고난을 자신의 치욕과 수모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잊혀버린 황군>¹³⁾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 영화는 17명으로 구성된 ‘元日本軍 在日韓國人傷痍軍人會’의 연혁과 오늘의 실태를 영상화한 작품이었다. 그들은 2차 대전 중에 강제로 징집되어 일본인과 함께 전쟁을 치르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는 했으나, 일본의 패전 후에 외국인으로 내몰리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고사하고 일본 정부에서 지급하는 군인 연금에서도 끝내 제외당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지은이는 이들을 결코 패배자로 바라보지만은 않는다. 그는 변화가 빌딩 앞에 엮드려 관광객들의 피사체가 되면서도 옛날의 군가를 애절하게 부르는 상이군인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끈질긴 삶이야말로 냉혹한 현실에 대한 고발이자 레지스탕스 그 자체에 다름 아님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일 한인의 이주 체험을 그린 수필에는 고국에서의 경제적 수탈 현실에서 벗어나 생존의 길을 더듬어 일본으로 건너왔거나,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의 신산한 삶이 담겨있다.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타국 땅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정신적 고통,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기아 정서, 터잡고 마음 편히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의 떠돌이 정서 등을 우리는 재일 한인의 수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에서 나아가 격랑의 세월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재일 한인의 강인한 생명력과 인간적 존엄성 또한 아울러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생존 의지

재일 1세대의 한결같은 염원은 차별과 박해의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 남은 생애를 마치고 조상의 묘역에 뼈를 묻는 일이었다.¹⁴⁾ 이들에

13) <忘れられた皇軍>은 오오시마 나기사(大島渚) 감독의 1963년작이다. 일본병으로서 전쟁에 참가했으나 한국 국적 때문에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이군인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한 쪽 팔과 한 쪽 다리를 잃고 두 눈까지 실명한 주인공 서낙원씨를 뒤쫓고 있다.

(<http://www.athenee.net/culturalcenter/DATABASE/titles/w/wasurerareta.html> 참고)

14) 이현홍, 「재일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서사문학」, 『동북아시아 한민족 서사문학』

게 고향은 낯선 타국에서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원천이었으므로, 누구나 고향에 돌아가 잘 살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며 고통을 견뎌내었다. 특히, 재일 한인의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왔거나,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인 만큼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종전 후에도 귀국이 쉽지 않았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강해져만 갔다.

<귀국하는 날까지>(이정임, 『삼천리』23호)의 글쓴이는 17세때 돈을 벌러 일본으로 와서 오사카에 있는 군복 공장에 취직한다. 식비마저 감당하기 힘든 빠듯한 월급을 받으면서 7년간 일하다가, 부모님이 혼처를 정해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일시 귀국하게 되나, 결혼 후에도 가난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일본으로 돌아와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조선을 오간다. 얼마 후에는 일본에 와서 일하던 남편마저 병으로 죽자, 아이는 한국의 동생 집에 맡기고, 혼자 일본에서 살면서 지금까지도 양복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몸도 피곤할뿐더러 아들 뺄도 채 되지 않을 젊은이들에게 일을 잘못한다고 혼이 나기도 한다.

얼마전, 큰 형님(오빠의 부인 : 역자 주)이 병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두 달 정도를 꼬박 보살펴 드렸어요. 그런데, 병간호를 한 보람도 없이 돌아가시는 걸 보니,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죽는다면 그야말로 비참한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는 바보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라며 귀국을 권합니다만, 내일은 돌아가자, 내일은 돌아가자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맙니다. 그래도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가야겠다는 기분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아들과 손자를 만나고 싶다고보다는, 아들을 맡아서 키워준 이제 예순 두 살이 되는 동생과 잠시라도 함께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¹⁵⁾

평생을 일본에서 살아온 그녀가 귀국을 결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생각, 가족과 만나 얼마 남지 않은 여생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은 그녀의 생존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재일한인들에게 고향은 ‘이제는 무턱대고 돌아가고 싶은 데’이며 ‘어쨌거나

연구』(박이정, 2005), 390쪽.

15) 이정임, <귀국하는 날까지>(『삼천리』23호), 122쪽.

벗어던지고 싶은 것이 이국족이라는 패랭이¹⁶⁾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 실상, 재일한인들에게 고향은 아름답기만한 공간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향은 수탈로 인해 내쫓길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의 땅¹⁷⁾이었다. 그러나 재일 한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 속에서 고향은 실제의 모습과는 다른 환상 속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고향은 어린 시절 동무들과의 즐거운 기억이 아로새겨진 곳이며,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다.

추억의 노래 속에 꿈꾸는 듯 아늑한 마을……순이도 제법 처녀꼴이 났을 무렵이었다. 은행나무 밑에서 마주치면 그윽한 미소 어린 순이의 얼굴이 사뭇 밍글해 보였다. 이렇듯 나의 젊은 심장에 짙은 인상으로 부각된 그 풍경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다. 아니 갈수록 한층 선명해질 따름이다. 고향! 고향이 그렇구나. 옛 마을에 가고꾸구나. 어린 시절의 동무들을 만나고 싶구나. 만나서 얼싸안고 밤이 지새도록 쌓였던 회포를 속삭이고 싶구나.¹⁸⁾

그들의 마음 속에서 고향은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느티나무를 보거나 은행나무를 볼 때 혹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 고향 이야기를 나눌 때, 고향은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한 편의 낭만적 풍경으로서만 떠오른다. 그들의 회상 속에서 고향은 전모를 드러내지 않는다. 느티나무에 얽힌 단편적인 추억,¹⁹⁾ 감나무에 얽힌 짧은 일화²⁰⁾로 파편화될 뿐이다. 그러한 낭만화·파편화를 통해 고향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는 고된 타국살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이방살이는 현실적인 너무도 현실적인 토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국에서 사는 사람들 이상으로 그 상념이 모국과 열려져 있는 그런 생활인 것이다. 그 상념은 이방살이가 계속될수록 점점 간절한 것으로 되며 마침내 그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모국을 떠난지 오래지만 나의 고향산천

16) 문철호, <路頭斷想>(『한양』62.9.), 168쪽.

17) 이현홍, 「재일 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서사문학」, 『동북아시아 한민족 서사문학 연구』(박이정, 2005), 390쪽.

18) 신상인, <은행나무>(『한양』62.10.), 162~163쪽.

19) 이덕성, <느티나무>(『한양』62.12.)

20) 전세민, <감>(『한양』62.10.)

은 해가 겹칠수록 더욱 뚜렷이 날이 거듭될수록 더 아름답게 나의 뇌리에
아로삭여지는 것이 아닐까²¹⁾

타국에서의 삶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간절히 그리워 하다가, 마침내 집착하
게 되는 대상이 바로 고향이다.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과거’를 항상 자신의 내
부에서 새롭게 재생시킴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키고, 나아가 자유로이 현재를 살
아가는 계기로 만들어나갔던 것이다.²²⁾

그러나 재일 한인의 고향에 대한 환상이 언제까지나 온전히 지켜지지만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 고향으로 귀국한 사람들 중에는 그곳에서의 정치적
혼란에다, 경제적 기반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거니와, 귀국을 미루고 일본에서 자리잡은 재일 한
인들 또한 현실 속의 고향이 결코 자신의 꿈과는 다름을 알고 있었다. 이미 고향
은 예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아름다운 모습
의 고향으로 떠올리는 것은 실은 오랜 타국 생활의 그리움에서 기인한 것임을
차츰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은 한 순간 좌절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 내 피할 곳이 어딘가? 내 돌아갈 곳이 어딘가? 해방이 된 후에도
내 소원은 큰 것이 아니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 떳떳하게 일하고, 근
심 없이 살며,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어엿하게 세워지는 나라의
나도 한개 어엿한 백성이 되자! 적어도 내 아들 딸들 대에는 그렇게 되자!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에서는 내 아들 딸 맞잡이들마저가 어떤 모양

21) 박원석, <고향에 부치노라> (『한양』62.11), 172쪽.

22) 김태생, 『私の日本地図』, 未來社, 1978년 8월, 256쪽, 윤건차, 『일본 그 국가·민
족·국민』(일월서각, 1997), 278쪽에서 재인용. 윤건차는 김태생의 말을 인용하
면서 재일 1세대의 망향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십 년간이나 고
국에 가지 못한 1세에게, ‘고향’ 그 자체가 어느 틈엔가 매우 ‘작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1세에게 조국과 민족, 고향이 도대체 무엇이었
나라고 새삼 진지하게 묻고 싶어진다……재일 1세에게는 조국과 민족, 고향, 가
족은 꿈이고 희망이었다. 비록 그것이 ‘못다 한 꿈’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었다. 물론 그것은 비하시켜야 할 일이
아니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재일 1세의 삶을 조용히
떠올릴 때가 아니겠는가.” (같은 책, 256쪽)

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나날이 어망차망해지니 무서운 일이 아닌가? 자라나는 내 자식새끼들을 데리고 그런 데로야 돌아갈 수 없지 않은가, 나는 그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좋은가.²³⁾

고향을 그리워했던만 ‘신문 지상으로만 보더라도 난리인 것은 짐작되기도 남음이 있는’ 고향, 오히려 자신의 동생조차 고국에서 살기가 힘들어 도일할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글쓴이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갈 곳을 잃고 뿌리없이 헤멜 수밖에 없다는²⁴⁾ 상실감과 해답 없는 탄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까지나 상실감과 탄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일이 ‘신기루를 찾아 떠나는 허무한 길’이라면 언제까지 그 신기루를 바라보며 현실을 도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은 일본에서 자리를 잡아야하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신기루를 찾는 것보다는 이국땅에서 향수를 머금은 삶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다.

고향이 나의 추억 속에 재현되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마을로만 남을 수는 없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전개되어만 갔으니 어찌하랴.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나를 반겨 마중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누구일까? 첫사랑이 맺어진 곳 그 은행나무는 그저 남아 있을까? 나무야 몇천년 고향땅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있으려면만 순이가 아직도 은행나무를 지켜 애달미 나를 그리고 있을 줄이야 기약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한 고국으로 이제와서 현해탄을 건너간다면 함은 흡사 신기루라도 찾아 떠나는 허무한 길일 것만 같다. 이국땅에서 향수를 머금은 삶이 차라리 낫으리라.²⁵⁾

저에게 일본은 어떤 곳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에 왔어야만 했고, 또 50년 동안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일본은 숙명적으로 끊어내 버릴 수 없는 것이었음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전후에, 세 번 한국에 갔다 왔

23) 문철호, <노두단상>(『한양』62.9.), 168쪽.

24) 지역적 향토애는 ‘장소에 대한 친밀한 경험을 회복하고 현실적인 덧없음을 극복’하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한다(김태운, 『일제 강점기 한국유이민소설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4, 38~44쪽).

25) 신상인, <은행나무> (『한양』 62.10.), 164쪽.

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어디까지나 저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70이 넘은 제가 살아갈 장소는 이미 없어져버린 것입니다.²⁶⁾

자신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자신이 자리잡고 살 수 있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새 자신은 고향에서 손님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일본은 쫓겨온 도피처 혹은 강제로 끌려온 수난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재일한인이 느꼈던 상실감은 역설적으로 돌아갈 곳이 없기에 일본땅에서 살아 낼 수밖에 없다는 생존 의지로 변용되고야 마는 것이다.

2. 정체성 모색과 실존적 재일 인식

재일 한인 수필 문학에 나타나는 또다른 중요한 문제의식은 바로 ‘재일한인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재일한다²⁷⁾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다. 윤건차의 논의에 따르면, ‘재일’은 ‘한 사람의 인간 속에 일본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국가나 민족, 출신이나 언어, 습관이나 문화 등이 혼재하고 있는 것’²⁸⁾이다. 더욱이 이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관계로 인해 두 국가의 혼재는 더 더욱 복잡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일본’을 무조건 배척할 것인가, 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둘의 부정 또는 양자택일을 넘어서 제3의 가능성을 추구할 것인가. 이처럼 재일한인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일,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일’이라는 행위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재일 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시간의 흐름 여부에 관계없이, 고

26) 김덕순, <재일 50년>(『삼천리』16호), 202쪽.

27) <在日>을 “일본에 산다(日本ですむ)” “일본에 있다(日本にいる)”라고 하지 않고 ‘재일한다(在日する)’고 하는 경우 ‘<재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잡하고 적극적인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윤건차,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일월서각, 1997) 295쪽. 및 이재봉,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논총』제32집, 2002, 366쪽 등을 참조.

28) 윤건차,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 일관계와 재일동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97쪽.

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재일’은 존재하는 내외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⁹⁾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경까지 ‘재일’의 아이덴티티는 민족에 근거를 두었다면, 70년대 후반부터는 1세에서 2세, 3세로의 세대 교체를 배경으로, 재일 한인 젊은 세대가 스스로의 주체를 표현하는 호칭이자 기존의 ‘조국’ 지향적 사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표현으로서 ‘재일로 산다’는 주장이³⁰⁾ 전개되기도 했다.

1) 관념적 민족의식과 당위성의 실과

앞서도 살펴보았듯 『한양』에 수록된 수필은 재일 한인의 주체의식·민족적 정체성³¹⁾의 자각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들 수필에서 재일 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해간다. 『한양』 소재 수필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곳과는 상관없이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당위적 의견을 강하게 펼친다. 이들에게 정체성이란 다분히 배타적인 것이었고,³²⁾ 당위적인 일을 실행하

29) 이에 대해 윤건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일’은 역사의 한 토막(장면)이다. 당연히 ‘재일’을 어떻게 정의할 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절대적인 조선인도, 절대적인 일본인도, 절대적인 재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자기도 변화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성도 변화한다. 국가의 틀이나 남북한의 통일 등 정치 그리고 경제의 변동에 의해서도 변화해 간다. 문제는 특정시대, 특정 조건에 있어 하나의 역사적 존재로서 ‘재일’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쟁취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길을 확보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윤건차, 앞의 글, 312쪽).

30) 윤건차,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일월서각, 1997) 295쪽. ‘재일’ 아이덴티티의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한양』과 『삼천리』에 나타나는 정체성 모색 문제와 상당히 일치한다. 『한양』에 수록된 정체성 관련 수필은 그 대부분이 60년대에 나온 작품이었으며(본고 2장 참조) 내용 면에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을 당연한 전제로 설정하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한편 1975년 봄에 창간호를 간행한 『삼천리』의 수필들은 재일 2·3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그려낸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31) Barth는 민족정체성을 ‘집단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심리적 영역 내지 경계. 집단원 내부에서는 동료의식을 조성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는 집단원으로서의 특성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그 민족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데서 가능해진다’고 하였다(Frederik Barth, *Ethnic Group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1969, 5쪽).

32) 이는 재일 1세의 정체성 의식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재일1세는 일본이라는

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당위에 어긋나는 사람들에게 배반, 매국, 망조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판의 화살을 다잡는다. 이와 같은 강한 민족의식이 재일한인으로 하여금 일본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재일한인 수필에서는 모국어의 사용을 매우 강조한다.³³⁾ 이들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만은 아니라고³⁴⁾ 생각한다. 한 민족의 경제가 콘크리트라면 그 민족의 말은 그 철근에 해당하는 것³⁵⁾이다. 콘크리트 공사에 꼭 철근이 필요한 것처럼 한 민족의 경제가 존립·발전하는 데 모국어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자의식과 존엄에 관련되는 일이며, 모국어에 대한 사랑은 바로 애국애족심의 발현³⁶⁾인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이국땅에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은 우리 말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국어 사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국 땅에서 조선의 낡은 생활 양식을 지키면서 그것을 관찰시키는 데에 생의 보람을 느꼈다.(중략) 2세·3세에게는 그러한 1세의 생의 보람은 오히려 ‘편견’으로 오염된 것이었으며, 1세의 일밖에 모르는 모습조차도 민족적 열등감의 씨앗처럼 느껴졌다.”(윤건차, 앞의 책, 일월서각, 1997, 309쪽)

이들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적 정체성의 이면에는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생존을 꾸려나가야 했던 그들의 역사적 현실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갈등·대립의 관계가 조성될 때 그 민족은 다른 민족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자기 민족만의 주체성을 재인식하여,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형성하려 하는 것이다(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신용하 편, 『민족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33) <모국어>(이덕성, 『한양』63.3.), <말>(한기수, 『한양』65.9.), <교포와 우리말>(황명동, 『한양』66.1.), <모국어>(송지행, 『한양』66.5.), <모국어를 두고>(김명진, 『한양』66.11.), <새해를 맞는 마음>(김형렬, 『한양』67.1.), <어머이의 호칭>(김유하, 『한양』67.3.), <언어유감>(한기수, 『한양』67.5.), <연하장>(장계락, 『한양』67.11.), <모국어>(박화자, 『한양』68.6.) 등이 그 주요 작품이다.

34) 황명동, <교포와 우리말>(『한양』66.1.), 191쪽.

35) 송지행, <모국어>(『한양』 66.5.), 213쪽.

36) 김명진, <모국어를 두고> (『한양』 66.11.), 212쪽.

불행하게도 이국땅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을지언정, 자기 체내에서 맥박치는 한민족의 혈관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순식간이라 할지라도 이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다.……우리들은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많은 민요, 민화(民話)를 비롯한 우수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수시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랑으로 알고 사랑함으로써만이 한민족으로서의 다급한 애국심이 울어날 것이며, 후일 나라의 기둥으로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도 함양될 것이다.³⁷⁾

이처럼 모국어는 바로 민족의 얼과 일맥상통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겨레의 긍지를 지키는 일이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반항’이었다. 그러기에 이들 수필에서는 모국어를 배반한 술한 군상들, 예컨대 모국어로 말을 걸면 모르는 척 했던 사람이나 고향이 일본 도호쿠 지방이라고 태연히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는 ‘분노에 앞서 실소와 구토를 느끼곤 하는’ 것이다.³⁸⁾

다음, 이들은 우리 민족 고유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한다.³⁹⁾ 우리의 전통 미술품, 의상, 민속놀이, 음식 등은 다른 민족이 따라오기 힘든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일 한인들은 그 우수성을 깨닫고 자신이 한민족인 데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큰애기 마음은 열 두폭 치마』라는 말이 있지만은 한국 여인들의 그 멋지게 늘어진 치마폭은 송죽 같이 곧고 순결한 절개와 한없이 부드럽고 착한 심성과 강하면서도 너그러운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옷맵시란 옷 그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과 소박하고 훌륭한 생활풍습과悠久한 역사의 자랑이 깃들여 있다.……그런데 이 조상들의 성스러운 옷이 姓不知名不知의 <맘보>바람에 정녕 짓밟혀야 한단 말인가!⁴⁰⁾

37) 이덕성, <모국어>(『한양』 63.3.), 150쪽.

38) 송지행, <모국어>(『한양』 66.5.), 114쪽.

39) 주요 작품으로는 <고려청자>(한병식, 『한양』62.창간호), <고려백자>(한병식, 『한양』62.4), <탈춤놀이>(하상두, 『한양』62.9), <포수의 향수>(최화국, 『한양』62.9), <의상의 미>(신상인, 『한양』63.3), <문화에 대한 이해>(하상두, 『한양』63.4), <골동을 애호하는 마음>(하상두, 『한양』63.7),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김희명, 『한양』64.3), <여름날의 미각>(신상인, 『한양』66.9)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우리 전통 의상을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실용적인 편리함을 넘어 '성스러운 존재'로 생각한다. 전통 의상은 민족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며 그 민족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신성한 증거물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맘보는 망뽀며 곧 '망할 징조'⁴¹⁾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수필에서는 한국식 이름의 사용을 강조한다. 한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이자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규정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른바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며 자라온 재일2세, 3세들에게⁴²⁾ 본명의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름이 단순히 사물을 부르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 하에 『한양』 소재 수필은 한국식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름 석자라고 소홀이 여기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우리 한민족을 뿔뿔이 여기고 자주 정신을 고취하며 남의 힘에 기대어 그 흉내를 내면서 사는 의타심을 버릴 노력이, 오늘날 더욱 요청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왜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 왜 일본사람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다른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알아야 하며 알려 주어야 한다.⁴³⁾

이들의 의식 속에는 성명은 자신의 뿌리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 한 개인 혹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 그 뿌리가 어디인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식 이름을 쓰는 것은 타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행위이다. 이름은 곧 일본인과 다른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민족정신과 주체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40) 신상인, <의상의 미>(『한양』63.3.), 138쪽.

41) 신상인, <의상의 미>(『한양』63.3.), 139쪽.

42) 1994년에 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재일한인 중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78%,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22%라고 한다. 이 조사는 통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55.7%가 '부모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용한다'고 대답한 것을 근거로 통명 사용에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관식, 『在日韓國人の現狀と未來』, 白帝社, 1994, 244쪽).

43) 전세민, <성명고>(『한양』, 63.3.), 142~143쪽.

것이다.⁴⁴⁾

또한, 『한양』 소재 수필은 결혼이나 귀화와 관련해서도 민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계약결혼>의 글쓴이는 생활을 위해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는 ‘얼빠진 말’이라고 단언한다. 40에 가깝도록 이국땅에 살면서도 변변한 호구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그가 취한 마지막 수단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민족의식이란 손꼽지만도 못가진 이런 무리가 남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교포중에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탄식이다.⁴⁵⁾ 물론 이는 단순한 민족적 배타성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은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본인과의 결혼의 한계>⁴⁶⁾의 글쓴이는 조카가 일본인 여자 친구를 데리고 오자 “좀 무리가 아닐까? 그녀는 지나치게 일본인적인 듯한데”라고 조카의 귀에 속삭인다. 그녀는 조카가 반드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기만을 원하지는 않지만, 만약 일본인 여성을 택하는 경우에는 일본적인 좁은 껍질 속에 틀어박히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 현해탄을 건너서 시집가는 것을 아주 자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넓은 여성을 만나주기를 바라는 것이다.⁴⁷⁾

귀화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귀화인의 주변>에서 글쓴이는 귀화란 ‘국적을 바꾸어 남의 나라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며 ‘자기 조국을 내동댕이치는 것’⁴⁸⁾이라고 표현한다. 이어서 그는 귀화를 한 후에도 자녀들이 결혼을 할 무렵이면 일본인은 ‘前한국인’이라서 결혼을 꺼리고, 교포들은 교포대로 귀화한 이들과는 결혼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이래저래 결혼문제에 곤란을

44) 배동호, <교포와 일본 이름>(『한양』, 66.3.), 168쪽.

45) 윤효식, <계약결혼>(『한양』 63.9), 165쪽.

46) 안복기자, <일본인과의 결혼의 한계>(『한양』, 68.5.)

47)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민족’이나 ‘혈통’에 집착하는 구세대의 가치관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크게 변하였다는 점, ② 재일 한인 자녀의 압도적 대다수가 일본학교에서 배움에 따라 일본인과의 교우관계가 많은 점, ③ 일본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끼리 사귄 기회가 적어 결혼 상대를 찾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강재언 외,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소화, 2000, 169쪽).

48) 김윤, <귀화인의 주변> (『한양』, 66.6.), 211쪽.

당한다는 예를 들며 귀화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그가 어느 귀화인에게 고향이 그리지 않은지 물어보았을 때, 그 당사자는 “비록 귀화는 했을망정 고향을 그리워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리 있겠오.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조국건설에 이바지합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이 대답을 들은 글쓴이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나라 팔아먹는 사상과 귀화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별로 차이가 멀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모국어의 사용,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표출, 한국식 이름의 사용, 민족간의 결혼 장려, 귀화인에 대한 비판 등을 다루고 있는 이들 수필을 통해 글쓴이들은 궁극적으로 재일 한인이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주체의식을 지닐 것을 요청한다.⁴⁹⁾

이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을 상실해 가는 재일 2·3 세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파우스트>를 인용해 한국적인 모습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팔며 혼을 파는 속물’⁵⁰⁾이라 표현한다. 이들은 재일 한인이 일본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재일 한인 스스로 민족적 주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열등의식을 내면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일한인 스스로가 민족적 긍지를 갖고 일인들에게 지지 않도록 해야 그들로부터의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¹⁾

이러한 생각은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우월의식을 키움으로써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대로 문제를 관념적인 영역으로 전이시킴으로써 현실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법적, 일상적 차별을 간과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당위적이고 관념적인 민족의식은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설득력을 지니기가 어렵다. 그

49) 주요작품으로는 <혼을 판 사람>(신상인, 『한양』62.6.), <열등감> (전세민, 『한양』63.6.), <열등의식>(한기수, 『한양』64.9.), <주체의식과 소비자즘>(정철, 『한양』64.12.), <수심>(이덕성, 『한양』65.5.), <버릇>(박근삼, 『한양』 65.10.), <자기상실>(신상인, 『한양』 66.4.), <꽃의 이야기>(한기수, 『한양』66.5.), <가혼>(이준석, 『한양』66.7.), <독자란> (전세민, 『한양』 67.6.), <서울의 동생에게>(김봉자, 『한양』67.12.), <차별단상>(김형렬, 한양68.3.) 등을 들 수 있다.

50) 신상인, <혼을 판 사람>(『한양』 62.6.), 144쪽.

51) 김형렬, <차별단상> (『한양』 68.3.), 117쪽.

래서인지 『한양』 소재 수필 중에도 비록 그 수는 적지만, 일방적인 비판과 배척에서 벗어나 인간적 연민의 시각을 보이거나, 민족의식과 현실 사이에서 해답 없는 고민을 하거나, 혹은 일본인과의 결혼이나 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 열린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카멜레온의 눈>(전세민, 『한양』 63.2.)에서 글쓴이는 오오사카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동포 학생을 만나게 된다. 그 학생이 주머니에서 꺼낸 성냥에 교포 음식점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글쓴이는 그 학생이 동포라는 사실을 눈치 챈다. 글쓴이는 그 학생에게 자신도 같은 동포임을 은근히 전하려 하나 학생은 시선을 피하며 말 나누기를 꺼리자, 그는 문득 카멜레온을 떠올린다. ‘얼굴빛이 일본사람과 근사하다는 그것을 보호색으로 하여, 카멜레온의 눈은 조금도 쉼 줄을 모른다’⁵²⁾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글쓴이는 이 어린 학생이 기를 펴지 못하고 몸을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 연민을 표하면서 “학생의 죄는 아니요. 그러나 학생은 피할 것이 아니라 똑똑히 앞을 내다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오. 안녕히”라고 격려를 건넨다. 그가 마지막의 ‘안녕히’를 우리말로 했을 때, 학생은 비록 여전히 주위를 살피면서도, 두 눈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다. 짧게 전한 우리말 인사와 학생의 웃음은 재일 한인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동질감과 앞날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예고하는 장면이라 하겠다.

<저도 엽전입니다>(송면, 『한양』 65.7.)에서 글쓴이는 친구와 함께 ‘바아’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친구는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나……계다가 일본옷까지 입고 있으니 말야. 모두 틀러먹었어.”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그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그녀는 글쓴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한국인이 아니냐고 확인을 하면서 ‘저도 엽전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한다. 친구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제야 일본인 행세를 하지 않아 반갑다고 치사를 하고 즐거이 술을 마시다 그곳을 나온다. 글쓴이는 ‘바아’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면서 민족의식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생활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생활의 문제는 그녀가 한민족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52) 전세민, <카멜레온의 눈> (『한양』, 63.2.), 159쪽.

생각을 한다. 그러기에 민족의식과 생활관념 간의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갈등을 감지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해답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어머니>(장재성, 『한양』69.3.)의 글쓴이는 후쿠오카의 한인 마을 바라크촌 화재의 희생자들에게 위문금을 전하러 온 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 얼른 보아도 ‘정말 일본사람다운 일본사람’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뜻밖에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었다. 비록 일본 남편과 살지만 한국을 못 잊고, 형제 같이 사귀던 이웃들이 화재를 당하니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한편으로는 일본사람의 어머니로, 일본사람이 되어 버린 그 여성에 대해 ‘어머니 잃어버린 허전’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으로 귀화했거나 일본 사람에게 시집간 사람들도 나라에 대하여, 동포들에 대하여 가지는 성의가 지극함⁵³⁾을 실감한다. 중요한 것은 동포들 사이의 동질감과 연대의 식이지, 귀화 혹은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재단하거나 일방적인 비판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의 표명이다.

2) 정체성 모색과 경계성의 인식

저에게 ‘조국’은, 물 속의 태양 / 손가락 사이로 줄줄 빠져나가 버립니다. //
 우리들이 이렇게도 / 발버둥치며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 평상복인 조선을 몸에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 저는 여러분들이 싫습니다.⁵⁴⁾

1980년대 이후 재일한인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2세, 3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일 수가 없었다. 관념적이고 당위적인 민족의식은 이들에게 짐지워진 또 하나의 과제일 뿐인 것이다. 1세대에게 조선은, 이미 몸에 배어있는 어떤 것이고⁵⁵⁾ 아무런 노력 없이도 평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존재였

53) 장재성, <잃어버린 어머니>(『한양』, 69.3.), 134쪽.

54) 윤혜림, <一世なんか 大嫌い>(『삼천리』21호), 200~201쪽.

55) 內海愛子, 『身世打命を 越えて』(『삼천리』26호), 147쪽.

다면, 2세대 이후에게 조국은 발버둥치며 손에 쥐려 애써도 손가락 사이로 줄 줄 빠져나가 버리는 존재이다. 이들에게 정체성 문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고한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하는 탐색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재일 한인 2세, 3세대들에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짐과도 같은 명제였다. 그들은 자신이 왜 한국인인가에 의문을 품고, 자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저주하거나 부정한다. 재일 1세대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적 차별을 그대로 이어 받은데다가, 재일 1세대들이 가정내에서 보여주었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모습⁵⁶⁾마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민족적인 갈등과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이중적인 모순 속에서 재일한인 2, 3세대들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유골>(손재현, 『삼천리』24호)은 재일 한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대간의 갈등과 화해의 시도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아버지의 옛 모습을 회상하게 된다. 철이 들 무렵부터 그의 부친은 이미 도박에 빠져 있었기에, 집안의 생계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하면 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칼을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소동을 벌이기 일쑤였다. 이후에 양친은 이혼을 하고 글쓴이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을 내심으로 기뻐하기도 했으나, 점차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도 뿌리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친의 마음을 서서히 알 것 같은 기분에 젖기도 한다. 졸업을 앞둔 그에게 아버지는 ‘대학은 꼭 가야하며 되도록이면 본명을 쓸 것’을 부탁한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옳음을 깨닫고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부탁을 따르게 된다. 한편, 아버지가 별세해도 장례식장에 얼굴을 내밀지도 않으셨던 어머니는 ‘꿈에 너의 아버지가 나타난다’며 ‘죽고 나니 미움도 한도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울먹인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글쓴

56) 2세 작가들은 자신의 가족사를 ‘난폭한 남편’과 ‘인내하는 아내’ 그리고 ‘어두운 가정’이라는 패턴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다(윤건차,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1997, 272쪽).

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잠깐씩 고향 이야기를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의 유골을 언젠가는 고향인 경상도로 모셔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재일 2, 3세들의 정체성 관련 문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 혹은 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 부재하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고민한다. <아버지 나라>(中村昌枝, 『삼천리』19호)의 글쓴이는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의 소생이다.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어 일찍 돌아가시게 된 이후부터 그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 ‘조선’이라는 말은 차별 용어 그 자체였으며, 조선인을 멸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저주하게 된다. 그런 그녀에게 일생을 따라다니는 문은 “왜 아버지가 일본에 왔는가?”라는 것이었다. 왜 그녀의 부친은 일본으로 왔어야 했으며 왜 그녀 자신은 재일 한인이라는 ‘저주’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가? 이는 바로 그녀 자신의 정체성에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그러던 그녀는 문득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말을 공부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 있던 친척들과 연락이 닿아 한국을 찾아가게 된다. 그녀는 조모의 묘소를 찾아뵙고 친척들로부터 그녀의 부친이 1929년 광주 학생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조모가 간신히 마련한 여비로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그 때문에 광주역의 역원이 되겠다는 꿈이 좌절된 채 평생을 불우하게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 사연을 듣고 난 후에서야 그녀는 ‘아버지의 일생이 불합리한 일들로 오염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토록 조선인임을 저주했던 자신에게 ‘스스로 일본밖에 모르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조선에 끌리는 마음’을 말하면서, 끊어버리려고 해도 언제나 계속 그녀를 잡아당기는 끈이 바로 아버지를 도와준 조모였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몸 속에 흐르는 피를 통해 조선과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녀는 드디어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익히며 한국을 방문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수필들과는 달리 이들에게 한국말과 한국문화는 정신적 우월감의 증거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단서이자, 자신과 한국, 자신과 앞 세대의 가족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으로 존재

한다.

<아버지의 재일, 나의 재일>(이경자, 『삼천리』24호)의 글쓴이는 중·고교 시절에 가장 괴롭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고전을 주위 학생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 왜 자신은 조선인이고 그들은 일본인이라는 차이가 있는가? 아니, 이러한 내가 과연 조선인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의문에서 출발한 글쓴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애초에 조선인이라면 당연히 지니고 있을 법한 무언가가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추장스런 조선인을 버리고 편리한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제서야 글쓴이는 평소 아버지가 “조선인인 주제에 조선말 정도 말하지 못하면 한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드리지 못한 것을 마음아파 한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살아가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나의 발상 방법도 바뀌기 시작했다. “어째서 나는 조선인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한산이씨의 피를 이어받은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에 딸의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납득하는 데에 상당히 먼 길을 돌아온 모양새가 되었다. 나는 ‘조선인’으로서 이제 막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디려는 참이다.⁵⁷⁾

글쓴이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존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 ‘자신이 왜 조선인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조선인이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글쓴이가 찾은 이 결론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한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아버지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귀화 시도라는 먼 길을 거쳐 오면서 그녀는 자기 나름의 답을 찾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산조의 선율 속에서>(이양지, 『삼천리』19호), <내 안의 우рук>(이양지, 『삼천리』35호)나 <머나먼 판소리>(이지택, 『삼천리』26호)의 글쓴이들은 가야금

57) 이경자, <아버지의 재일 · 나의 재일>(『삼천리』24호), 108쪽.

혹은 판소리라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조국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다.

<머나먼 판소리>의 글쓴이는 어린 시절 부친이 운영하던 공사장의 밥집에서 일 년에 한 두 번 소리꾼을 불렀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생각 저편으로 밀려나고 다시 떠올리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는 일본 음악 운동을 통해 일본 전통 예능과 만나게 되면서 알 수 없는 허기증을 느끼고는 그 반작용으로 한국의 전통예술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서 찾아 들을 수 있는 한국의 전통 예술은 어릴 적 그의 기억에 남아있던 그 소리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 까닭을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아무에게서도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날들을 보낸다.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판소리를 연창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공연 기사를 보고, 공연 현장을 찾게 된다.

다음 순간, 뜻밖의 감정이 나를 덮쳤다. 높고 가늘게 흔들리는 듯 흘러나오는 선율에 울컥하고 뭔가 북받쳐 오르는 것이 있었다. 나는 혀를 깨물어 그 아픔으로 참아보려고 했지만, 공연이 끝날 때까지 몇 번이나 그것은 나를 덮쳐왔다.……나는 전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번이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 어쩔 줄을 몰랐다. 이 북받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선율 때문일까. 아마도, 그 주된 원인은 그 리듬과 멜로디, 그리고 그것을 그려내는 목소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의 풍토에 길러지고 혈육에 스며들어 있는 토속적인 그것은 몇 대가 지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⁵⁸⁾

판소리 사설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름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는 이 감정이 소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혈육에 스며들어 있는 그것은 시공을 뛰어넘어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게 되는 것이다.

재일 2, 3세들이 조국을 만나는 과정이 이처럼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조국 방문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칫 그들은 자신과 조국의 머나먼 거리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 한국의 언어와 풍습을 모르는 재일 한인이 한국에 왔을 때

58) 이지택, <머나먼 판소리>([『삼천리』 26호), 173쪽.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리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내기도 한다.

<처음 만난 조국>(김영중, 『삼천리』19호)에서 글쓴이는 공항에서부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분리된 통관 창구를 보면서 그는 고민에 빠진다. ‘나는 분명 순수한 한국인이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니다. 그러나, 내국인도 아니다. 도대체 나는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⁵⁹⁾ 모국의 거리를 걸으면 뭔가 강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설렘은 잠시뿐 자기 마음은 금방 식어갔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여권을 보며 한국인인데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며 핀잔을 주거나 힐문한다. 그런 질문에 지쳐갈 즈음 우연히 찻집을 운영하는 선이 넘은 아저씨를 만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사람 좋은 그 아저씨는 글쓴이에게 격의 없이 말을 건넨다. 대화 끝에 아저씨는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하지만 글쓴이는 아저씨의 인품 때문에 그 말을 설교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친근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풍토와 환경이 사람의 얼굴마저 바꾸어 놓는다. 사람은 그 풍토에 익숙해져, 그 토지의 얼굴을 지니기 때문이다. 태어나서부터 쪽 일본에 사는 조선인 2세는 생활 기반이라고 해야 할 것을 일본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과는 별개의 차원에 또 하나의 사실이 엄존한다.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⁶⁰⁾

그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임을 인정하며 그 꼬리는 어찌면 ‘핏줄의 문제’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배경이고, 그것을 부정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며, 그것은 어찌면 자신의 몸속을 흐르는 피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59) 김영중, <처음 만난 조국> (『삼천리』 19호), 120쪽.

60) 김영중, 앞의 글, 124쪽.

<우리들의 아리랑>(김창관, 『삼천리』19호)의 글쓴이는 전정일이라는 음악인과의 만남을 통한 한 재일 청년의 자기 정체성 모색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전정일은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민족과 조국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민족 음악에 관심을 갖고 공연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평양까지도 방문하게 되는데, 평양 방문 후,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조선과 현실과의 괴리, 다시 말해 기대와 현실과의 갭을 느끼고 고민하게 된다. 그는 그 갭을 메우기 위해 자신을 바꿀 것인지, 갭의 거대함에 실망할 것인지, 갭을 갭으로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 상황에서, 세 번째 가능성을 택한다. 귀국하는 배에서 일본이 보였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향’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몸의 어딘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하다. 그는 민족과 조국도 필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尹万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타적 선택이나 자신의 부정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혼재’하는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제3의 존재,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한다. <자기를 ‘청산’한다는 일>(강박, 『삼천리』20호)의 글쓴이는 재일 한인을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들에게 정체성의 모색은 단순히 소극적인 귀속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그들의 고민이 결국 자신의 실존적 기반에 대한 긍정과 자기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재일 한인임을 인정한다. 그들은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이’는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들, 혹은 버림받고 떠도는 이들의 소극적 도피처가 아니다. 이 곳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른 곳에 존재하는, 독자적 가치를 지닌 적극적 경계이며, 그러기에 그들은 재일 한인들만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재일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그들 자신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고 하며⁶¹⁾ 조국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꾸려나가고자 노력

61) 위량복은 <초등학생에게 배운 나>(『삼천리』17호)에서 친구의 초등학생 딸이 글쓴이가 한국인임을 알고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조선인으로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녀들의 조선관을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잇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초등학생인 그녀에게서 배운 것’(120쪽)이라고 말

하게 되는 것이다.⁶²⁾

IV. 마무리

이 글은 재일 한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떤 모습의 수필로 그려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추론해 본 것이다. 재일한인들의 수필은 잡지, 단행본 등 다양한 매체에 수록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우리말로 간행된 『한양』 소재 수필을 중심 자료로 삼고, 일본어로 간행된 『삼천리』와 『청구』에 실린 작품들을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재일한인 수필문학에 담긴 생활사의 유형과 의미를 우리는 크게 이주민으로서의 삶과 망향의식, 정체성 모색과 실존적 재일 인식, 조국 현실의 인식과 참여 의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일한인의 이주 체험을 그린 수필에는 고국의 수탈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일본으로 건너왔거나, 끌려온 사람들의 신산한 삶과 함께, 끝없는 망향의 아픔이 짙게 배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원천이었다. 삶이 힘들수록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 하나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그러기에 고향은 삶의 총체적 터전으로서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추억 속의 아름다운 풍경, 즉 파편적, 낭만적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자신이 꿈꾸는 고향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그 수필은 끝없는 상실감과 해답 없는 탄식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실감이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일본 땅에서나마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처절한 생존 의지로 변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둘째, 재일한인 수필에 나타나는 정체성 관련 문제는 두 모습을 보인다. 그

하고 있다.

62) 70년대 이후 재일한인 수필문학에서 조국 현실에 대한 관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든지, '조국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들이 <재일>을 무기로 삼아 통일의 거머뭇이 되어야한다'는 논리 펴는 일 등은 모두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이재봉, 『재일한인 문학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논총』 제32집, 한국문화회, 2002, 366쪽 참조).

하나,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다. 그 예로는 우리말을 모르는 젊은이, 일본인과 결혼한 동포, 한복을 입지 않는 동포 등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당위적이고 관념적인 민족의식은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설득력을 지니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들 수필 중에는 비판과 배척으로만 일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들 동포에게 연민의 시선을 버리지 못하는 등, 민족의식과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해답 없는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정체성 모색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경우이다. 앞서의 수필들에서는 우리말과 우리의 전통 문화가 정신적 우월감의 증거물이었음에 반해, 이들 수필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단서이자, 자신과 조국, 자신과 가족 등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으로서의 기능을 지닌다. 물론, 그 단서와 끈의 귀결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혹자는 뚜렷한 민족적 자각을 하는가 하면 혹자는 결론 내리기를 망설인다. 어느 경우이든 그들은 자신이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재일 한인임을 인정한다. 그들은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이'는 소극적 도피처가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과는 또다른 곳에 존재하는, 독자적 가치를 지닌 적극적 경계인 것이다.

셋째, 재일한인 수필의 유형에서 언급하기만 하고, 이 글에서 상론하지 못한 부분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이는 재일한인들이 일본에서 직면하고 있는 생존 문제, 차별 문제와의 투쟁을 넘어, 조국의 분단 현실 및 독재 권력을 타파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의 모습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조국의 분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통일에 대한 기대와 그 속에서 재일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 4·19에 대한 재평가, 7~80년대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주제어 : 재일 한인, 생활사, 수필 문학, 이주 체험, 망향 의식, 정체성 모색

참고문헌

1. 자료

『한양』 1962년 3월호~1984년 3·4월호(통권 제177호)

『삼천리』 1975년 봄호~1987년 여름호(통권 제50호)

『청구』 1989년 여름호~1996년 봄호(통권 제25호)

2. 단행본 및 논문

1) 국내논저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강재언 외,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소화, 2000.

김태운, 「일제 강점기 한국유이민소설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4.

김중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손승철 외, 『한일관계사』, 민음사, 1994.

신용하 편, 『민족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유숙자, 『在日한국인 문학 연구』, 월인, 2000.

윤건차,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월서각, 1997.

윤일성, 「재일한인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4집(한국문학회, 2003.8. 269~307쪽)

이광규, 『在日韓國人』, 일조각, 1983.

이재봉,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논총』제32집(한국문학회, 2002.12. 361~393쪽)

이현홍, 『동북아시아 한민족 서사문학 연구』, 박이정, 2005.

이현홍, 「재일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서사문학」, 『한국문학논총』제34집(한국문학회, 2003.8. 89~142쪽)

한국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한일관계사학회,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1998.

2) 국외논저

Frederik Barth, *Ethnic Group and Boundaries* (Little Brown, 1969)

姜在彦, 『在日からの 視座』 (新幹社, 1996)

吉岡増雄 편, 『在日 朝鮮人の 生活と 인권』 (사회평론사, 1980)

김달수 외, 『日本の中の 朝鮮』 (太平出版社, 1974)

김용해, 『本名わ 民族の 誇り』 (碧川書房, 1996)

内海愛子, 「身世打令を 越えて」 (『삼천리』26호, 1981. 여름.)

関寛植, 『在日韓國人の現状と未來』 (白帝社, 1994)

<Abstract>

The Representation and Implication of Korean Residents' Livelihood in Japan on Essay Literature

Lee, Heon-Hong

This paper is designed to pursue the implications of essay writings portraying the lives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well as the types of essays representing their lifestyles. Those essays on ethnic Koreans' lives in Japan are examined greatly through three different categorizations in terms of their respective represen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ethnic Koreans' life patterns, i.e. the life as a migrant and his/her nostalgic sentiment, the quest for his/her identity and the recognition of Japan as an existential being, and the realization of problems with homeland and his/her own will of the resolution.

First, the essays on those ethnic Koreans' migratory experiences strongly tingle with painful and endless nostalgia, not only of abductees with bitter lives but of those who voluntarily emigrated to Japan to escape from the exploitative reality in their native country. For them, home country served as the source of hope that enables them to stand against their difficulties. They bore their adversities with the only hope that they could return home someday, yearning more for home as their lives get harder. On this aspect, home is often portrayed not as a real picture of the life itself, but as a beautiful representation of their memory such as fragmentary but romantic picture. Ironically, however, the sense of loss sometimes transforms itself into the image of a desperate willingness for survival that they have no choice but to survive in Japan.

Second, the matter of identity that appears in the ethnic Korean's essays is two-faceted. One is a contention that any Korean descendent should be aware of the identity as Korean. These types of essays occasionally assume that both an attitude toward criticism and rejection of speech and action fail to show the identity. In other cases, they worry too much about an unanswerable problem of choosing between national awareness and realistic limitations to seize themselves with a great pity. The other is a concern with the process of an active quest for identity. While the essays mentioned above represent the mental superiority of Korean language and its traditional culture, these essays function both as an important clue to find their identity and a precious connector of them and their home country, and them and their family. They acknowledge that they are so-called 'Korean-Japanese, who belong neither under Koreans nor Japanese; they exist 'between' the two. This 'between' is not a passive retreat, but an active boundary with its own value at a place rather than Korea or Japan.

Finally, the author will illustrate the remainder of essays mentioned earlier in this paper which was not discussed in detail. Those essays are works of the ethnic Koreans' active effort to break the fetters of the division in their native country and its political problems beyond the struggling issue of survival and discrimination they face in Japan. Though, further discussion on these essays will be presented on next dissertation.

Key Words : Korean residents in Japan, life history, essay literature, migratory experiences, nostalgia, pursuit of identity.